

광주에서 세계로 ... 제이홉 '춤의 여정'

"광주의 호석이"가 진짜 시작이죠. 그랜 그저 '춤'밖에 출 수 없던 시절이고, 가장 자신 있는 것도 춤. 그리고 춤만 알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던 거죠"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 안무팀장 겸 메인댄서 '제이홉(정호석)'은 최근 OTT플랫폼 티빙에서 론칭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HOPE ON THE STREET'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음악 여정의 출발점이자 뿌리인 '춤'에 대해 성찰하는 이번 웹다큐는 데뷔 12년 차를 맞아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배움의 여정'을 돌아보는 6부작 다큐멘터리다. 세계 각국의 댄스 '스승'을 찾아 하우스, 힙합, 락킹 등 다양한 댄스 장르를 배우는 내용이며 현재 4화까지 전 세계 240국가/지역에 공개됐다.

다큐는 청록색 컨테이너로 구성된 팝업 쇼룸을 건대 커먼 그라운드에서 춤을 추는 제이홉의 모습을 담았다. J.cole이 피쳐링한 'on the street'에 맞춰 자유분방하고 리드미컬한 몸짓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행복해 보인다.

'on the street'는 제이홉이 입대 전 팬들에게 선물처럼 남긴 노래로 "가는 길이 희망이 되고자 한다"는 가사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노래에 맞춰 미니멀한 하우스 리듬에 힙합, 팝핀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제이홉의 몸짓은 '밝은 에너지' 그 자체다.

길을 따라가며 스트리트 댄스 씬의 역사를 썼던 인물들을 만나는 구성도 흥미롭다. 아파트 골목에서 팝핀을 추는 스트리트 댄서 부갈 루킨

다큐 '홀온스' 어떤 내용 담겼나

데뷔 12년 '성장 과정' 6부작 구성
파리·뉴욕 등 전 세계 240곳에 공개
세계 각국 스승 찾아 댄스 습득기 담아
민주광장 등 광주 배경 앨범 제작도

(김학남)은 제이홉이 연습생 시절 춤 선생님이자 팝핀 세계 챔피언이다.

구불구불한 히라가나 입간판을 뒤로한 채 엠프 하나를 놓고 몸을 흔들거나, 비 오는 오사가 거리와 육교를 따라 '락킹(locking)' 안무를 하는 이들의 모습은 자못 낭만적이다.

캠벨로킹(Campbellocking)이라고도 불리는 락킹은 1970년대 돈 캠벨이 LA 나이트 클럽에서 펑키하고 즉흥적인 스텝 형태의 예술을 보여준 것을 시초로 보기도 하는 댄스 장르다. 제이홉이 갈색 양복과 페도라를 쓰고 자유로운 스텝을 밟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제이홉은 영상에서 "그동안의 내 인생 자체가 댄스 장르 중 락킹(locking)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가끔 무언가를 잠그듯 '락(lock)'을 해야 했던 경우도, 반대로 풀어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춤'을 추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가 목표를 위해 감내해 온 여정이 가늠되는 대목이다.

제이홉은 낭만의 도시 파리로도 날아간다. 그는 '파리 느낌'이 물씬 나는 계단 위에서 춤을 췄던 기억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것 중 하나'라며, 하우스 장르 곡 'I don't know'에 맞춰 익사이팅한 안무를 펼쳤다.

그는 자신의 음악 여정이 "결국엔 춤에서 시작했고 춤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며 "이번 필름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춤을 추고, 춤 스승들을 만나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로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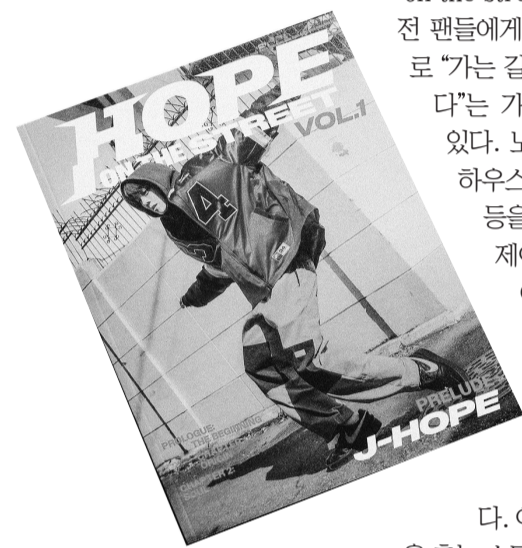
한편 제이홉은 고향인 광주에서도 화려한 안무를 보여줬다. '민주광장'과 '5·18 빛의 분수대', 동구 '금남로공원'에 위치한 입석대 모양 공공조형물 앞에서 화려한 몸짓을 보여줬다.

제이홉은 광주 곳곳을 배경으로 이번 앨범 타이틀곡 '뉴런'을 창작했던 일화를 들려줬다. 그는 "뉴런이 '호프 온 더 스트리트' 앨범의 피날레 느낌으로 창작한 노래"라며 "우리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저마다 움직이고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사에 담았다"고 전했다.

광주 북구에서 태어나 초·중·고교 시절을 지역에서 모두 보낸 제이홉이 민주화 함성의 중심지였던 민주광장과 빛의 분수대, 입석대 조형물 등을 배경으로 "사람들은 신경세포 뉴런처럼 끊임 없이 움직일 것이다"고 말하는 대목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광주 5월'의 가치와도 일정한 부분 맞물리는 지점이 있다.

한편 현재 4화까지 공개된 '호프 온 더 스트리트'는 선공개된 오사카, 파리를 비롯해 미국 뉴욕,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다양한 장르 댄서들과 계속해서 '춤'을 매개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전 세계에 신보 '호프 온 더 스트리트(HOPE ON THE STREET) VOL.1'을 발매했다. '스트리트 댄스'를 모티브로 창작한 음악을 담았으며 타이틀 곡은 '뉴런(NEURON)'이다. 이번 앨범에는 BTS 정국을 비롯해 다이나믹 듀오 개코, 윤미래, 베니 블랑코, 르세라핌 허윤진 등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협업해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악 통달한 명인들의 '정수'

국립남도국악원, 27일 진악당... 기악 독주·판소리·산조 등

국악에 통달한 명인들의 공연에는 우리 소리의 '정수(精髓)'가 깃들어 있다. 이들은 기악 독주부터 무용, 판소리나 산조까지 여러 장르에 걸쳐 예인(藝人)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한다.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이 기획공연 명인전 첫 시리즈로 '정수(精髓)'를 선보인다. 오는 27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진행.

공연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등을 역임하고 서울대, 단국대, 동국대 등에 출강 중인 김영길의 '박종선류 아쟁산조'로 막을 연다. 아쟁 특유의 애잔하면서도 힘 있는 소리, 기교가 넘실대는 파도와 같은 느낌을 선사하는 곡이다. 정해진 형식과 길이 없이 즉흥적인 선율로 연주되는 '산조' 특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판소리 '흥보가' 중 '박 타는 대목'은 소리꾼 왕기철의 목소리와 조용안의 가락으로 연주된다. 이

대목은 다리 다친 제비를 흥보가 치료해 준 뒤, 박을 타면서 흥보가 부자가 되는 익숙한 내용이다.

명창 왕기철은 제27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개막 공연에 출연한 바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며 현재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

이어 기악독주곡 '호적풍류'와 판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황성 올라가는 대목'(유영애 소리)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전통음악에서 지방 무가 반주음악 등에 사용되던 시나위 '호적풍류'는 재즈에 비견될 만큼 즉흥성의 미가 돋보이는 곡으로 최경만(태평소), 이상기(장고), 김은성(쟁과리), 정(김예찬)이 출연한다. 끝으로 매현춤보존회, 한국전통춤협회 이정희 이사장이 추는 '도살풀이춤'도 볼 수 있다.



태평소 연주자 최경만 소리꾼 왕기철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예능보유자, 판소리 이수자 등 다양한 '명인'들이 펼치는 예술혼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호적풍류'나 '아쟁산조' 등 즉흥성이 강한 곡부터 화려한 기교를 요하는 '도살풀이춤'까지 다양한 레퍼토리가 관객들의 신명을 돋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국악원 전화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다'와 '맛'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0일~5월28일 '바다문화학교'

바다는 모든 생명체들의 보고다. 생명이 물에서 왔던 것에서 보듯 모든 생명을 포태하는 것이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바다를 모티브로 역사와 문화, 예술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졌던 것은 그 같은 연유 때문이다. 바다를 주제로 맛과 음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가 진행하는 '바다, 미식의 세계'가 그것. 30일~5월 28일(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사회교육관) 열리는 제33기 바다문화학교에서 펼쳐지며 각계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바다'와 '맛' 등을 소재로 바다가 함의하는 미식의 세계를 탐색한다. (11~25일까지 전화 또는 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100명 모집) 먼저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조선의

미식가가 맛본 바다 음식'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장준우 셰프(칼럼니스트)는 '동서양 해산물 요리에 담긴 인문학'을 고리로 강좌를 펼친다. 이어 '바다의 건강함 맛, 생선과 해산물 가이드' (5월 14일, 황지희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슈퍼피쉬-인류역사를 바꾼 슈퍼푸드' (21일, 송용달 KBS 제작1본부 협력제작국장), '바다가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일상' (28일, 오창현 국립목포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도 예정돼 있다.

표수아 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교육과 연구사는 "이번 바다문화학교에서는 해산물 요리를 비롯해 바다음식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학적 가치는 물론 인문학의 렌즈로 바다의 다양한 면을 조명할 것으로 본다"며 "시대 또한 동서양의 오랜 역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포괄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